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9,900원 인상
유급 대체휴무 쟁취
실질적 위험성평가 시행

제1호 / '15.4.21(화)

□발행처:선전부 □발행인:조민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임단협 시작부터 치고들어오는 노동부

사용자 위해서 인사경영권 침해하는 단협 조항 손보겠다고 나서

임단협의 포문을 노동부가 연다?

2차 지부교섭이 16일(목) 보쉬지회에서 열렸다. 2차 교섭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제 막 상견례를 마치고 시동을 걸고 있는 임단협에 노동부가 먼저 강하게 치고 들어오고 있다. 단협 시정 지도를 통해 인사,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리해고나 전환배치할 경우 노조와 합의해야하는 조항이나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사측이 들고 나와도 코웃음밖에 안나올 내용을 노동부가 먼저 자본들에게 선물로 안겨주려고 하고 있다.

교섭원칙 합의, 요구안 설명

사실상 박근혜 정권와의 한판 싸움은 불가피하다. 노동부의 단협 시정지도 같은 꿈수 뿐만 아니라 이미 큰 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양보할 것은 없다. 지부는 노동자 입장에서 불가피한 싸움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사용자들에게 지역에서만큼은 큰 불미스러운 일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며 교섭을 시작했다.

먼저 교섭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지난 상견례에서 확정하지 못한 교섭성원 문제를 최종적으로 논의했다. 사측은 한라공조의 부장급 인원을 교섭성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노측의 의사를 물었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사전 논의를 통해 KDK만 회사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장급 교섭위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라공조까지 부장급 교섭위원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섭성원은 임원급 인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어 지부 사무국장이 지부 요구안에 대해 설명했다. 표준생계비에 비해 73% 수준밖에 되지 않는 금속노조의 임금수준을 고려해서 올해 기본급 159,900원 인상을 요구했다. 또 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하기 위해서 관공서 공휴일 규정 수준의 유급 대체휴일을 요구했다.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치면 익일을 유급 휴일로 하도록 했다. 세 번째로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있지만 형식적인 요식행위였던 위험성 평가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실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5년 임단협은 총파업으로 시작한다

2015년 교섭은 이제 막 2차 교섭을 마쳤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4.24 총파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 임단협은 임금 땀푼 올리는 싸움이 아니라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다. 4.24 총파업은 노동자와 정권의 싸움에서 기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올해 임단협 결과는 4.24 총파업에 달려있다는 심정으로 힘차게 투쟁하자!

2차 교섭 속기록

정부의 과도한 개입, 싸움 불가피

〈전차 회의록 낭독〉

사 : 날씨가 포근해지는 봄인줄 알았는데 오늘 날이 흐렸다. 먼길 오시느라 수고하셨다. 이 비 그치고 나면 진짜 봄이 되는데 좋은 계절에 가능한 빨리 끝내서 결실의 계절을 빨리 맞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사측 뿐만 아니라 지부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면 좋겠다.

노 : 이번주 화요일날 지방노동청에 공문이 하달됐다. 단협 전수조사해서 인사경영권 침해하거나 특혜 있는 걸 손보겠다고 한다. 타임오프 때 기억하시면 알 것이다. 정부에서 잼을 날렸는데 다음에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다. 관계사 입장에서는 우려했고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타임오프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지금도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노사관계가 오고 있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노동조합 입장에선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사용자도 이해해줬으면 한다. 지역에서 만큼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일찍 마무리하고 저희 선거도 차질없이 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사회 : 교섭원칙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겠다.

노 : 노측 사회자는 코스모링크 김영세 사무장이 하겠다. 교섭성원 문제 관련해서 논의했는데 작년에 KDK까지만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 한라공조까지 부장급 교섭위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열어두는 건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많다. 어차피 김수한 상무가 간사로 들어오시니 굳이 부장급 인원을 성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는 철회하는게 어떨까 한다.

사 : 철회가 아니라,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조합 측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렇게 하자.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하자.

노 : 요구안 설명하겠다. 기본급 159,900원 인상을 요구한다. 금속노조 부양가족이 평균 3.7명이다. 월 평균기본급이 198만원, 고정급여가 429만원 정도이다. 3.7명의 표준생계비가 580만원 인 걸 고려하면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물가인상을 1.9%, 예상 경제성장을 3.4%, 소득분배율 개선치 고려해서 159,900원 인상을 요구했다.

다음 유급휴일 요구안이다. 관공서 공휴일 관련한 규정이 2013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설,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휴일과 중복되면 익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다. OECD 노동시간을 보면 멕시코가 1위이고, 한국이 2163시간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세 번째 위험성 평가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무로 명시되었다. 일년에 한번씩 하는데 회사 주도로 진행되었다. 사실 위험성 평가라는 게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노사가 공동으로 평가해서 위험성을 제거하는 의미이다.

사 : 각 사별 의견을 아직 취합을 못했다. 중앙교섭은 다음주 교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 : 다음주 한주는 모든 교섭을 중단한다.

사 :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차수에서 질문하겠다.

사회 : 차기 교섭일정 확인하겠다. 4/30(목) 대한이연에서 개최하겠다.